광주일보 Weekend

1 제17924호 2판
2007년 12월 1일 토요일

엔터테인먼트

원더걸스·빅뱅·소녀시대·FT아일랜드 등

아이돌 그룹 전성시대

5인조 그룹 빅뱅은 최근 열린 '2007 Mnet KM 뮤직페스티벌'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남자 그룹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의 '생방송 인기가요'에서 1위에 해당하는 '뮤티즌 송'은 9인조 여성 그룹 소녀시대가 차지했다. 원더걸스는 또 어떤가. 복고풍 댄스와 쉬운 멜로디가 인상적인 '텔 미'로 현재 인기 상한가다.

〈원더걸스〉

〈빅뱅〉

〈소녀시대〉

올 가요계의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소년·소녀 그룹들의 인기가 높다는 것. 대부분 1988년~1993년생 사이인 아이돌 그룹들은 또래들 뿐 아니라 팬층을 넓히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동방신기와 SS501이 일본 활동에 매진하면서 빈 공백을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채우고 있다.

▲소녀들의 전쟁

원더걸스와 소녀시대의 경쟁은 예전의 S.E.S와 핑클의 대결을 연상시킨다.

9명의 소녀들로 구성된 '소녀시대'는 '다시 만난 세계'로 청소년 팬들의 사랑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이승철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소녀시대'로 연타석 홈런을 쳤다.

멤버들의 개별 활동도 두두러진다. 유리와 수영은 KBS 2TV 새 일일시트콤 '못말리는 결혼'에 출연중이며 윤아는 수애가 주연을 맡았던 '9회말 투아웃'에 얼굴을 내보였다.

5인조 그룹 원더걸스는 박진영이 처음 내세운 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러니'라는 곡으로 데뷔식을 치른 원더걸스는 전국민이 따라 부르는 노래 '텔 미'로 인기 고공 행진 중이다.

멤버 중 선예와 소희는 MBC '쇼 음악중심'의 MC를 맡고 있으며 특히 15세 소녀 소희는 이미숙·김민희와 함께 출연한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두 팀은 다음달 5일 합동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년들의 전쟁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자랑하는 빅뱅은 지난해 데뷔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그룹으로 양현석의 YG 패밀리 소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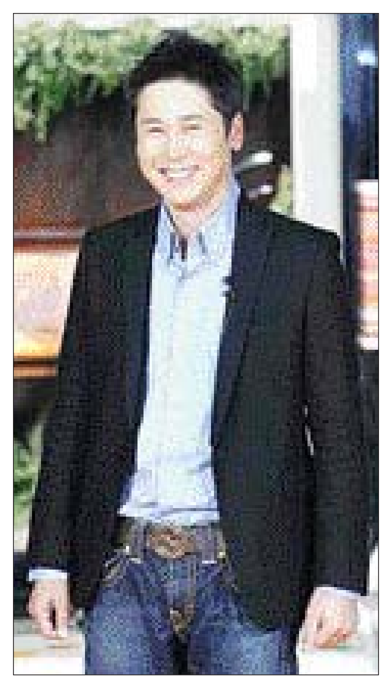
빅뱅은 여느 아이들 그룹과 달리 '음악'으로 정통 승부를 거는 그룹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올 최고 히트곡인 '거짓말'은 그룹 멤버인 지드래곤이 작곡했으며 발표한 지 3일만에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의 1위 자리를 휩쓴 후속곡 '마지막 인사' 역시 그의 작품이다.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5인조 그룹 FT 아일랜드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돌 그룹으로는 드물게 드럼, 기타 등을 직접 연주하는 밴드인 FT 아일랜드 발라드곡 '사랑앓이' 등을 히트시키며 고른 연령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된 그룹보다 연령대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각종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 역시 아이돌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트로트 앨범을 내는 등 노래를 통해 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13명으로 구성된 슈퍼주니어의 장점은 각 멤버들이 연기자, MC, DJ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김희철은 '황금신부'에 출연중이며 강인과 신동은 각각 라디오와 '뽀뽀뽀'의 진행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SBS TV '일요일이 좋다-인체탐험대'에 전 멤버가 출연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동엽 "예전처럼 방송에 에너지 쏟아붓겠다"



"'일요일이 좋다-인체탐험대'를 계기로 예전처럼 방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신동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진행자 신동엽(36)이 고해성사(?)를 했다.

최근 SBS TV '일요일이 좋다-인체탐험대의 녹화장에서 만난 신동엽은 "그동안 사업(매니지먼트사)을 병행하느라 분산했던 에너지를 다시 방송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를 만들고 나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물리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예전처럼 방송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지 못했던 감이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회사를 세우고 2~3년간은 다소 힘에 부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나랑 잘 맞을까를 놓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서 즐거우면 가급적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딸을 얻은 것도 프로그램 선택의 기준을 변화시켰다.

"아빠가 된 것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 사랑받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거죠."

집단 MC 체제가 유행처럼 번지는 와중에도 신동엽은 단독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제도 김용만 씨랑 유재석 씨랑 와인 한잔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계속 그랬어요. '두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 대입을 시켜보곤 했는데 전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상황을 조율하며 잘 진행하더군요." /연합뉴스

12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세븐데이즈	32만 7천249	86만6천193
2	식객	29만 6천588	240만 304
3	색, 계	22만 4천655	105만 9천333
4	베오울프	17만 4천208	80만 8천247
5	쏘우 4	12만 3천353	17만 1천250
6	골든 에이지	8만 3천477	11만 6천831
7	스카우트	5만2천238	26만 8천488
8	라 비앙 로즈	4만 6천482	6만 1천758
9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1만 5천920	10만 8천997
10	바르게 살자	1만 2천575	214만 8천 639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	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32.7
2	태왕사신기	MBC	31.3
3	대조영	KBS1	30.1
4	며느리 전성시대	KBS2	27.3
5	무한도전	MBC	24.6
6	황금신부	SBS	23.7
7	이산	MBC	22.8
8	왕과 나	SBS	20.3
9	아현동 마님	MBC	20.2
10	조강지처 클럽	SBS	18.0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오션스13	드라마
2	만남의 광장	코미디
3	스파이더맨 3	액션
4	에반 올마이티	코미디
5	제9중대	드라마
6	기담	공포
7	300	액션
8	두사람이다	공포
9	해부학교실	공포
10	넥스트	SF

〈자료제공:영화마을〉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텔미	원더걸스
2	배반	빅마마
3	거짓말	빅뱅
4	니가 사는 그집	박진영
5	프라미스 유	애니밴드
6	둘이라서	이루
7	사랑에 미치면	임정희
8	한번더 이별	성시경
9	매일매일	V.O.S
10	TPL	애니밴드

〈자료제공:멜론〉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팩스 227-9500〉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디자인 2200-536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팩스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